

바우하우스 정신 깃든 생활도자의 미학

『쓰임: 100년 공방 마가레텐회에와 이영재』展...2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마가렛 꽃이 많은 동산이라는 뜻의 마가레텐회에는 1924년 독일 에센 지방에 설립된 생활자기 공방이다. 마가레텐회에는 노동자를 위한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자는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실천해왔다. 생활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며 작품에 반영했던 바우하우스 예술가들처럼, 마가레텐회에 장인들은 아름다운 형상만큼이나 쓰임을 고민한 실용적인 도자기를 만들어왔다. 가장 편리하면서도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갖추도록 표준화된 형태와 여섯 가지 유약은 마가레텐회에 특유의 미학이다.



마가레텐회에 생활자기



마가레텐회에 6가지 유약

신세계갤러리가 마가레텐회에 공방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공방에서 제작된 생활자기와 공방을 이끌고 있는 이영재 작가의 도자 작업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쓰임: 100년 공방 마가레텐회에와 이영재』전을 개최한다. 오는 2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3월 대구신세계갤러리에 이어지는 순회전이다. 이후 대전과 강남신세계갤러리에서도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마가레텐회에 장인들이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기 1천300여점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로, 이를 판매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마가레텐회에와 한국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 현재 공방을 이끌고 있는

이가 1972년 한국에서 독일로 건너가 도예와 미술사를 공부하고, 독보적 가치를 인정받은 도예 작가 이영재이기 때문이다. 1987년 공방 대표가 된 그는 2006년에 공방을 완전히 인수해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대표하는 도자 공방으로 운영 중이다. 이 작가와 마레텐회에는 한국의 오랜 도자 전통이 만들어진 특유의 정서와 바우하우스적 실용미를 결합해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고 한국적이면

서도 현대적인, 그래서 오래 볼수록 더욱 좋은 자기를 제작해 왔다. 한국과 독일은 도자의 기본 재료인 '흙'의 성질부터 제작 과정과 결과물까지 상이하기에 서로 다른 도자 전통을 발전시켜왔다. 두 국가의 도자 문화의 차이와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융합한 이 작가의 작품들은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단순한 형상처럼 보이지만, 미세한 선의 차이와 유약 활용에 따라 각각 다른 매력을 전달하는 '사발', 두 개의 사발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방추항아리'는 작가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킨 대표적 예다. 다양한 미학적 실험 속에서도 '쓰



이영재작 '방추항아리'(사진 위)와 '항아리'

임'에 대한 작가의 고민 역시 지속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의 도자기는 미국 무대 연출가로 버트 윌슨이 애장하는 그릇이자 독일 쾰른 성 베드로 성당의 미사용 성배로 써 사용됐다. 마가레텐회에 공방 생활자기 역시 빨기예와 요르단 왕실 식기 세트로 사용되며 그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증명해 왔다. 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 "쓰는 사람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이영재의 사발과 항아리, 그리고 삶과 공간을 또 다른 풍경으로 변화시키는 마가레텐 회에의 생활자기까지 실용성과 미학적 아름다움을 겸비한 특별한 도자기를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 전시가 바쁜 생활 속 작은 쉼표가 되고, 앞으로의 일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광주시립합창단

‘희망의 하모니, 오월을 노래하다’

16일 광주시립합창단 5·18음악회 ‘광주합창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기리기 위한 기획 연주회가 마련됐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음악회 '광주합창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지역 내 8개 합창단(광주챔버싱어즈·광주여합창단·광주에듀콰이어합창단·광주사랑의 부부합창단·광주아무르합창단·광주 아버지합창단·광주CBS여성합창단·남구장애인행복이음합창단)이 함께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에게 다양한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다양한 합창단이 모인 만큼 연주곡도 다양하다. 아름다운 한국 가곡부터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각 합창단 특색에 맞춰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9개 합창단 모두가 한 목소리로 희망을 전하는 '우정의 노래' 연합 합창곡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공연이 마무리된다. /최명진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초청 '여울빛 콘서트'

내일 남도국악원 진악당

우리 음악의 독창적 계승에 힘쓰는 전주시립국악단(사진)이 풍성한 음악 무대로 진도를 찾는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전주시립국악단 초청공연 '여울빛 콘서트'를 개최한다. 전주시립국악단은 1979년 민속예술단으로 창단해 현재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관현악을 총망라하며 공연을 펼쳐가고 있다. 이날 공연의 서막은 '한바탕 전주 관현악 소품'으로 시작된다. '스포츠타리트 전주'와 '전주다움'을 연주하는 관

현악곡으로, 전주시립국악단만의 매력을 선보인다. 이어 조승희 전주시립국악단 수석 단원의 소아형 협주곡 '두엔데(duende)'가 연주된다. 다음으로 관현악 '민요의 향연'이 펼쳐진다. 허정승 남도국악원 성악단 악장의 '적벽의 노래' 무대에 이어 전주시립국악단 관현악 반주와 함께하는 사철가,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웅장한 사운드로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종석 전주시립국악단 수석단원이 작곡한 설장구 협주곡 '길'(road)이 대미를 장식한다. /최명진 기자

‘기악인들의 축제’...제23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

25-26일 빛고을시민문화관...21일까지 신청 접수

제23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이 광주 남구청과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공동 주최·주관으로 오는 24일 막을 올린다. 대회는 24일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5일과 26일 오전 9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관악·현악·가야금병창 부문 경연이

이뤄지며,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신인)부·단체부·명인부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고등부 종합결선 상위 2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부장관상이 각각 수여된다. 대학·일반부 대상은 국회의장상과 상금 200만원, 명인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과 상금 1천500만원, 부상으로 악기를 지급한다. 황승욱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은 "올해 2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기악대제전은 관악, 현악, 가야금병창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의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며 "본 대회가 앞으로도 국악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국악인들의 등용문이 돼 국악 보급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대회 참가접수 마감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악신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빛고을기악대제전'은 21세기 한국 음악을 이끌어갈 명인명장을 선발하는 권위있는 대회다. 관악·현악·가야금병창 세 부문에서 우리 시대 최상의 기량을 가진 전통예술인과 청소년을 선발해 표창한다. /최명진 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